

All in Print China 2006 참가 업체

다이니폰스크린, CTP 및 워크플로 전시

일본의 다니폰스크린제조(주)는 오는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상해 뉴인터내셔널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되는 All in Print China 2006에 CTP 관련 장비 및 워크플로 관련 솔루션 등을 전시한다. 전시부스는 서관 W1 C242이며, 이번 전시회에서 다니폰스크린은 다양한 워크플로 관련 솔루션들과 최첨단의 CTP 솔루션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CTP 장비로는 PlateRite8600과 PlateRite24000이 전시되며, 상업인쇄 워크플로 솔루션인 Trueflow3 Ver.4.0도 선보인다. 이밖에 다니폰스크린제조(주)가 레터프레스와 플렉소 인쇄 시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최첨단 CTP장비인 PlateRite FX870도 공개된다. 또한 다양한 워크플로 관련 솔루션 및 CTP 시스템 시연행사를 개최, 참관객들이 CTP 솔루션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그파그래픽스, 아발로 디지털 솔루션 선보

오는 6월14일에서 17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제2회 All in Print China에 아그파차이나가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그파의 8-up 및 초대형 포맷 아발론 LF, VLF CTP시스템이 전시된다. Avalon LF는 화상 기술에 있어 한 차원 앞선 기술력으로 CTP 출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겸비한 차세대 CTP 시스템이다. 생산성도 뛰어난 LF XXT모델은 국전 사이즈(1030×800mm)를 2400dpi의 해상도로 시간당 40판까지 출력할 수 있으며 아발론 LF XT 모델은 무현상 판재 아주라를 사용, 시간당 22판까지 출력할 수 있다. 아발론은 제2세대 GLV 테크놀로지, 자동 캘리브레이션, 출력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는 고도의 제어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아그파의 차세대 CTP이다.

스페인 신문사, 아그파 디지털솔루션 계약

아그파그래픽스는 스페인의 최대 신문사인 El Pais사가 바이올렛 CTP솔루션인 고속 플라리스, N91V판재, 아키텍스 뉴스드라이브, Pre-ink 전자동 소프트웨어, 현상기, 펀치 및 밴딩 시스템 등 디지털솔루션 전 부문에 걸친 도입 및 2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금액이 12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계약과 관

련, El Pais사는 아그파 디지털 솔루션의 높은 인쇄 품질과 안정성을 계약의 주요 이유라고 전했다. 아그파 그래픽스의 신문사용 솔루션은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지원에 탁월하며 장비, 소프트웨어, 소모품에 이르는 전체 솔루션의 통합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 이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마자 에스피노(Marga Espino) El Pais사 제작 담당 이사는 “아날로그 생산시스템에서 디지털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도입하고자 했다”며 “도입 시 여러 제품들을 조사해 보았으며 아그파가 우리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실무자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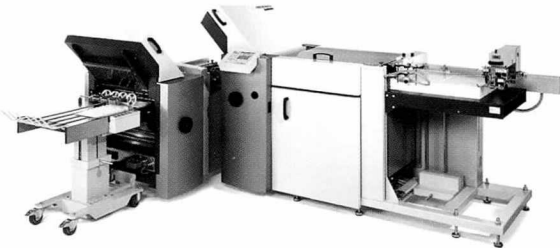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SM 74 3만대 판매 달성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영국 인쇄 업체인 아콘프린트(Acom Print)사에 3만번째 인쇄 유닛을 탑재한 스피드마스터 SM 74 5도 인쇄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웨스트 미들랜드 윌렌홀에 위치한 이 회사는 2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토탈 인쇄 서비스 업체로 프리프레스, 인쇄 및 후가공에 이르기까지 하이델베르크의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인쇄실에는 2대의 스피드마스터 SM52와 프린트마스터 GTO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약 2백만 달러에 달한다. 광고 업체,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상 4도 상업 인쇄 코팅이 포함된 인쇄물이 주요 생산품이다. 스피드마스터 SM74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으로 2도에서 10도까지 공급되며 선택 사양으로 양면 장치와 코팅 유닛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시간당 1만5천장의 속도로 0.03mm에서 0.6mm까지의 두께 용지에 인쇄가 가능하다.

하이델베르크, Stahlfolder TA 52 출시



하이델베르크는 급지기에서 배지기까지 자동화되어 중소규모 인쇄사들의 후가공 작업을 돕는 스탈폴더TA 5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탈폴더TA 52는 용지 규격이 입력되면 필요한 값으로 자동 설정된다. 작업자는 결과를 직접 살펴보고 나서 서커를 미세 조정할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기울어진 핀맞춤 테이블의 사용도 용이하다. 종이 정렬 가이드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위치로 자동설정되기 때문에 각 용지는 정밀하게 정렬되고 완벽하게 첫 번째 접지 유닛으로 급지된다. TA 52의 모토로 가동되는 발체는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 작업자는 발체를 제거하지 않고도 디플렉터(용지를 받아 들어 작업 하는 것)로 발체 작업을 설정할 수 있다. 모든 발체는 같은 길이를 갖고 있어 각기 다른 두께의 접지물 처리에도 항상 같은 접지 길이를 보장한다. 또한 접지 롤러 갭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작업 준비가 매우 빠르다.

특수 그립 소프트 폴리우레탄 접지 롤러는 건인력을 향상시키고 접지물 이송 시 흡집을 방지해 준다. 소프트 폴리우레탄 링은 용지 이동 방향으로 정확하게 회전하며 이를 통해 접지물이 정확히 일직선 앞 방향으로 인도되어 정확하게 접지 된다. STA 36,A 소규격 배지부의 최대 작업 폭은 36cm로 제품설명서 같은 소형 접지물도 취급할 수 있다.

유포사, 고속 건조 성능 신제품 종이 출시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지역에 소재한 유포코퍼레이션아메리카는 오는 6월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HOW디자인컨퍼런스'에서 신제품 YUPO Accel을 출시한다. 이 프리미엄급 신제품 종이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건조 시간이 80% 절감됨으로써 우수한 인쇄품질을 구현하면서도 빠른 납기를 맞춰야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다. 모든 유포사의 종지와 마찬가지로 Accel은 고백색, 고품질도와 내구성을 갖췄으며 100% 방수는 물론 오염방지 기능이 있고 재활용도 가능하다. 유포사 측은 "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Accel을 시험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이는 유포사의 높은 품질 수준과 작업시간 절감이 기대치를 초과한 결과다"고 밝혔다.

EFI, 크로마시티와 유통 협정 체결

미국의 디지털 솔루션 제공업체인 EFI와 크로마시티(Chromacity)사가 최근 그래픽아트 산업의 EFI 제품 북아메리카 지역 유통권과 관련한 전략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크로마시티사는 EFI의 Digital StoreFront 프리프레스 워크플로 및 Colorproof XF 시스템을 비롯한 EFI 제품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북아메리카 그래픽아트 유통 채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피더 넬슨(Peder Nelson) 크로마시티 사장은 "크로마시티는 EFI의 파트너로 EFI의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EFI의 프린팅 솔루션과 높은 활용성을 보다 손쉽게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ise, 점착성 지류 제작 시설 확장 계획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의 Boise Paper사는 점착성(봉투 따위가 위에서 누르면 잘 붙는) 지류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7200만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주 월라라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초기기에 20만톤 규모의 최신 점착성 설비 증설로 이뤄진다. 톰 스티븐스(Tom Stephens) Boise 최고경영자는 "이 프로젝트는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며 우리는 특수지 및 프리미엄 지류 부문에서 성장해왔다"며 "우리의 목표는 점착성 지류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설비 증설은 2006년 6월에 시작돼, 2007년 1/4분기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에스코 사용자 그룹 통합

국제 에스코 제품 사용자 그룹인 Artios Users Group International(AUGI)과 Esko Users Group(AEG)이 최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각각 다른 에스코그래픽스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AUGI는 장비에 집중돼 있던 반면에 AEG는 그래픽 제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두 개의 사용자 그룹은 동일한 모임 장소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2006년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모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새로운 그룹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설명회 시간이 진행됐는데, 설명회가 끝난 후 두 그룹 회원들은 압도적으로 통합을 승인했다.

두 그룹의 이사회는 현재의 모임을 2007년을 끝으로 해산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설립, 2008년에 하나의 그룹으로 공식 모임을 갖는 향후 일정에 합의했다.